

목 차

■ 최근의 경영 여건 핫 이슈

Executive Summary 1

I. 개요 2

II. 경영 여건 핫 이슈 3

III. 기업의 대응 방안 17

■ HRI 경제 지표 18

최근의 경영 여건 핫 이슈

① 미국발 세계 쓰나미 경제의 현실화 우려 -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증대

- 미국 경제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연쇄적 침체가 우려되고, 환율, 주가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응 방안 : 예상되는 주력 수출 시장의 부진과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교역 다변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와 위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② 잠복된 차이나 리스크 -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근 중국 경제의 투자 과열 현상이 방치될 경우 버블 붕괴에 따르는 내수 장기 불황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우려됨
- 대응 방안 : 높은 잠재력으로 중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유효하나,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③ 허버트 피크의 도래 - 에너지 가격 상승세 지속

- 2010년 내 전세계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이루는 '허버트 피크'가 도래함에 따라, 석유 자원 고갈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석유 공급 불안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대응 방안 : 이러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및 주요 사 용 원자재에 대한 헷지 능력 제고 등이 요구됨

④ 펀드자본주의의 확산 - M&A 활성화와 기업 판도 변화

- 가계와 기업의 금융 자산이 펀드로 이동하여 펀드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가 기업 지분 확보를 통해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펀드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함
- 특히 국내 M&A 시장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기업 및 정부 지분 매각 대상 기업 들의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M&A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 대응 방안 : 국내 활성화가 예상되는 M&A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적대적 M&A에 대비한 경영권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임

⑤ 政冷經熱의 한반도 정세 - 북핵과 민족 공조 틈 속의 남북 관계

- 북핵 해결의 지연 속에 미국의 우회적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은 공세적 민족공조와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 경협의 지속 발전이 전망됨
- 대응 방안 : 앞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과 경제 개발이 보다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SOC 사업의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⑥ 하이브리드 코드의 풍미 - 컨버전스와 디지로그 시대 전개

- 어원적으로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 또는 융합하는 '異種 결합'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 (Hybrid) 코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확산중임
- 대응 방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소비자와 직원들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인프라 확립에도 신경을 써야 함

최근의 경영 여건 핫 이슈

I. 개요

- 2006년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성과 나아가 기업의 성쇠(盛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주요 경영 여건들도 상존함
- 미국발 세계 쓰나미 경제의 현실화 우려 -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증대
 - 미국의 '그린스펀 소비 버블' 붕괴 가능성이 증가될 경우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연쇄적 침체를 의미하는 쓰나미 경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잠복된 차이나 리스크 -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중국 경제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과열 현상이 방치될 경우 버블 붕괴에 따르는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허버트 피크의 도래 - 에너지 가격 상승세 지속
 - 에너지 자원의 공급 제약이 현실화되고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 공업국들의 수요 급증세로, 국가간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격화와 고유가 지속이 전망됨
- 펀드자본주의의 확산 - M&A 활성화와 기업 판도 변화
 - 세계 펀드 자본의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M&A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M&A 시장 활성화와 기업 판도 변화가 예상됨
- 政冷經熱의 한반도 정세 - 북핵과 민족 공조 틈 속의 남북 관계
 - 북핵 해결의 지연 속에 미국의 우회적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은 공세적 민족공조와 대외 개방을 확대로 남북 경협의 지속 발전이 예상됨
- 하이브리드 코드의 풍미 - 컨버전스와 디지로그 시대 전개
 - 이종간 결합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코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코드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영역인 디지로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중임

II. 경영 여건 핫 이슈

1. 미국발 세계 쓰나미 경제의 현실화 우려 -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증대

○ (의미) 2006년에는 세계 경제의 최대 소비지인 미국 경제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연쇄적 침체가 우려됨

- 쓰나미 경제 현상이란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한 지역의 정치 경제적 사건이 주변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함

○ (현황) 미국의 '그린스펀 소비 버블' 붕괴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 美 경제 버블 붕괴 우려 : 미국은 그동안 '미스터 버블'로 평가되는 그린스펀 美 연준 의장 체제 하에서 추진된 저금리 정책에 의한 미국 경제의 과잉 성장 기조가 향후 크게 위축될 전망이 대두됨

· 그린스펀은 美 경기가 2000~01년 IT 거품 붕괴, 9.11 테러 등으로 침체되자,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여 가계 신용 확대, 주택 경기 부양 등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도모함

· 그 결과 美 경제는 최근 2년간(2003. 3/4 ~ 2005. 3/4) 연평균 4.1%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이는 소비자들의 채무 증대, 주택 경기 버블의 부작용을 유발

· 만일 최근에 추진된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경기가 급락하거나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급속히 축소될 경우 '그린스펀 소비 버블'이 붕괴될 우려가 매우 높음

- 美 경제 저성장 전망 대두 :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일부 언론 기관에서는 고유가, 고금리, 주택 경기 붕괴 등의 요인으로 작년 4/4분기(성장률 1.1%)부터 시작된 경기 위축 분위기가 올해에도 이어져 2%대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함

○ (영향)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세계 경제 동반 침체 및 환율, 주가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경제 침체 및 국제 금융 시장 불안 : 먼저 미국 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달러 약세 및 세계적인 주가 하락 등과 같은 금융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것임
- 개도국들의 연쇄적 성장 둔화 불가피 : 또한 전세계 소비의 1/3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 침체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성장 둔화가 예상됨

○ (대응 방안) 예상되는 주력 수출 시장의 부진과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교역 다변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와 위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신흥 수출 시장 개척 :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은 물론, 산유국 및 신흥 공업국 등과의 교역을 강화
- 非가격 경쟁력 강화 : 가격 경쟁력 위주의 수출 전략을 지양하고 R&D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함
- 금융 상품 헷지 전략 : 환 헷지는 물론, 주식이나 금리성 자산 등도 점차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국제 금융 시장의 교란에 대비한 금융 리스크 관리 체제를 보다 강화해야함
- 무역 결제 통화 다변화 : 무역 결제 통화를 달러 이외에 유로, 엔화, 원화 등으로 다변화하는 환 리스크 분산도 필요함

< 금리 파생 상품 >

-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 단기 보유에 따른 자본 손실 방지, 부채 급증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파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단기적인 운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자율이 일정 수준으로 급등하면 보유 채권 가치의 급락과 부채 부담의 급증으로 재무상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음
- 부산 선물거래소의 국고채 (3년물, 5년물)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직접 헷지, 금융 기관에서의 대출시 일정 수수료 지급 후 사실상의 고정 금리 대출 상품 이용 등

2. 잠복된 차이나 리스크 -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의미) 중국 경제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근 중국 경제의 투자 과열 현상이 방치될 경우 버블 붕괴에 따르는 내수 장기 불황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우려됨
- (중국 경제 고성장의 動因) 최근 중국 경제 고성장은 수출 호조(대외 수요)와 투자 집중(내수)에 의해 견인됨
 -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르는 수출 호조 : 1999년 6.1%에 불과하였던 수출 증가율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0~30%대의 고성장을 지속함
 -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1999년 211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687억 달러로 급증하며, 경제성장률 제고와 중국내 수출 산업의 투자 증대 효과를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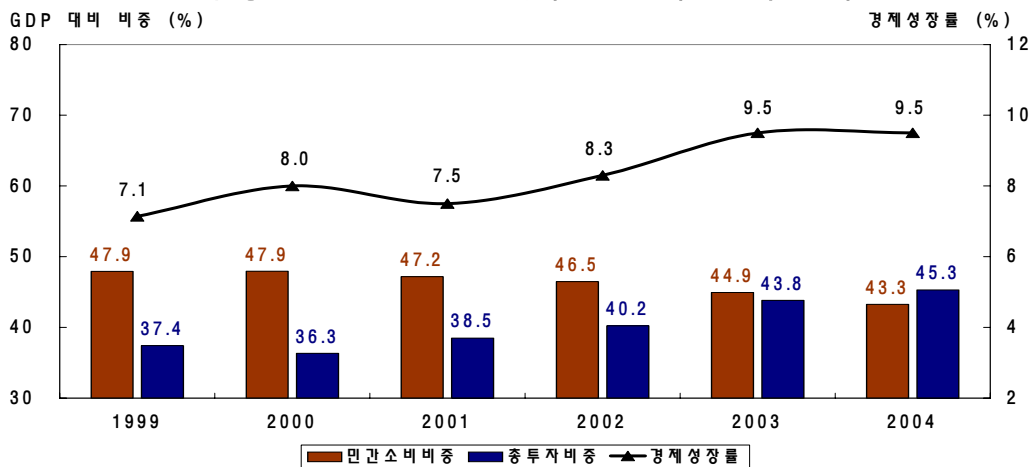
< 중국 대외 거래 지표 추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상수지 (對 GDP 비중)	억 달러	211.1	205.2	174.1	354.2	458.8	686.6	
	%	(2.1)	(1.9)	(1.5)	(2.8)	(3.2)	(4.2)	
무역수지	억 달러	292.3	241.1	225.5	304.3	254.7	319.5	
	수출 증가율	% , FOB	6.1	27.8	6.8	22.4	34.6	35.4
	수입 증가율	% , CIF	18.2	35.8	8.2	21.2	39.8	36.0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ADB) - Key Indicators 2005.

- 투자 견인 성장 구조 : 민간소비의 대 GDP 비중은 1999년 47.9%에서 2004년에 43.3%로 하락한 반면, 총투자 비중은 37.4%에서 45.3%로 증가함

< 중국 경제성장률 및 GDP 대비 민간소비와 총투자 비중 >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ADB) - Key Indicators 2005.

○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투자 과잉, 단기 채무 급증, 에너지 의존도 심화, 무역의존도 급증 등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남

- 투자 과잉 : 2004년 중국 정부의 경기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의 고정 자산투자는 2005년 들어 상승 추세를 지속함
 - 과잉 유동성 : 중국 통화 공급 증가율 (M2 증가율)은 2004년 14.9%에서 2005년 3/4분기말 17.9%로 상승함
 - 정부의 투자 규제 강화 : 2005년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 자동차 등의 과잉 업종, 시멘트, 전력 등의 잠재적 과잉 업종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산업 구조조정 촉진 규정」을 제정·시행에 들어감

< 중국 투자 및 통화 지표 추이 >

(%)

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	2/4	3/4
도시고정자산투자증가율	10.7	17.0	24.2	31.4	36.6	24.8	26.4	27.4
부동산투자증가율	22.1	27.3	31.3	33.6	32.6	27.0	24.6	22.7
M2 증가율	12.3	17.6	16.9	19.6	14.9	14.0	15.7	17.9
M2 對 GDP 비중	150.5	162.7	175.9	188.7	186.1	-	-	-

자료 : 한국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주 : 도시고정자산 및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기간중 평균치이며, M2 증가율은 기말기준임.

- 단기 채무 급증 : 중국의 대외 채무 비중은 2000년 이후 약 14%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 채무 비중이 급증하는 불안 요인이 존재함
 - 총 대외 채무중 단기 채무의 비중은 1999년 10%에서 2003년에 37.7%로 증가
 - 다만 2005년 9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7,690억 달러로 일본의 8,433억 달러 (11월말 기준)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외 채무 불이행 우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중국 대외 채무 및 외환보유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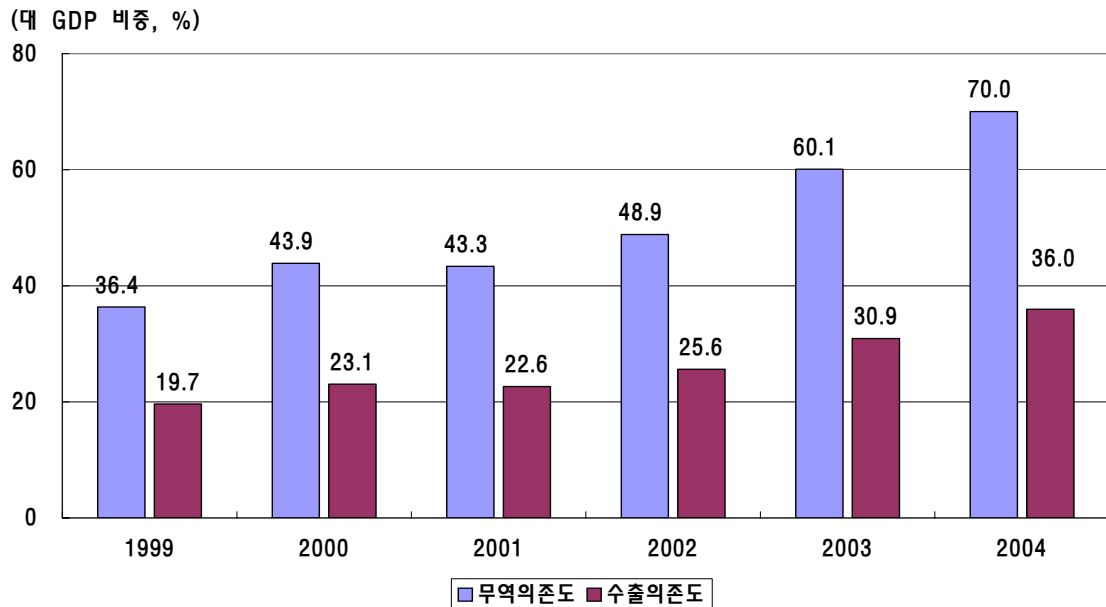
항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대외 채무	억 달러	1,520.9	1,457.3	1,701.3	1,683.4	1,935.7
장기 채무 비중	%	90.0	91.0	75.5	71.6	62.3
단기 채무 비중	%	10.0	9.0	24.5	28.4	37.7
외환보유고	억 달러	1,583.4	1,688.6	2,187.0	2,952.0	4,122.3

자료 : ADB.

주 : 기말 기준임.

- 에너지 의존도 심화 : 2004년 세계 GDP에서 중국 경제의 비중은 약 4%에 불과한 반면, 석유 소비는 7.4%, 석탄 소비는 31%를 차지
 - 중국의 GDP 1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4배, 독일의 7배, 일본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탄성치는 2000년 0.02에서 2004년 1.60으로 급증
- 무역의존도 급증 : 중국의 2004년 무역의존도는 70.0%로 1999년의 36.4%의 약 두 배 가량 증가함
 - 또한 수출의존도도 같은 기간 19.7%에서 36.0%로 급증함
 - 특히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999년 21.5%에서 2004년 22.8%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중국 무역의존도 및 수출의존도 추이 >



자료 : ADB.

주 : 무역의존도 = 수출입 / GDP × 100, 수출의존도 = 수출 / GDP × 100.

- (전망) 단기간 내 중국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미국 발 세계 경제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거나, 중국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 실패할 경우 경제 위기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단기 전망 : 중국 경제의 개발 수요가 뒷받침되어 투자 부문의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며, 버블 붕괴에 따르는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음

· SOC 투자 수요 확대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EXPO 등의대 규모 국제 행사 관련 시설 투자 수요와, 北京—上海 고속철 건설, 지역 균형 발전 3대 프로젝트 등의 지역 개발 수요가 존재함

< 중국의 지역 균형 발전 3대 프로젝트 >

- 西氣東輸(서기동수):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 연안 지역으로 수송하는 인프라 구축
- 西電東送(서전동송): 양쯔강, 산사댐 등 대형 수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남·중·북 3개 전송망으로 나눠 화남·화동·화서지역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
- 南水北調(남수북조): 남쪽 지방의 풍부한 물을 수량이 부족한 북쪽 지역으로 송수

· 수출 경기 유지 : 2006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정체를 보일 전망이나, 일본과 EU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 교역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IMF 세계 교역량 증가율 (%) : 10.3% ('04) → 7.0% ('05) → 7.4% ('06)

- 중장기 전망 : 중국 정부의 경제 안정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투자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만약 세계 경제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 여건이 악화된다면 장기 내수 불황에 빠질 우려가 존재함

· 중국 정부의 각종 사업에 따르는 국내 인프라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고, 정치적 요인으로 고성장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아, 중복 과잉 투자에 따르는 투자 수익률 하락이 예상됨

· 이러한 가운데 미국발 세계 경제 침체, 위안화 평가 절상 및 통상 마찰,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심화될 경우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 이 경우 기업, 금융 기관 부실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나아가 내수 침체에 따르는 외국 자본 이탈, 다시 기업 도산으로 이어져 내수 장기 불황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 (영향)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경영난, 대중 수출 부진에 따르는 수출 경기 급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음

- (대응 방안) 중국 경제의 높은 잠재력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은 여전히 유효하나, 다만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위기 발생시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기업들은 각각의 여건에 맞추어 중국 경제 위기 발생시 전염 효과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장치와 같은 상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교역 및 투자 다변화 : 중국에 교역이나 투자가 편중된 기업의 경우, 대상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할 것임

< 새로운 성장 동력, 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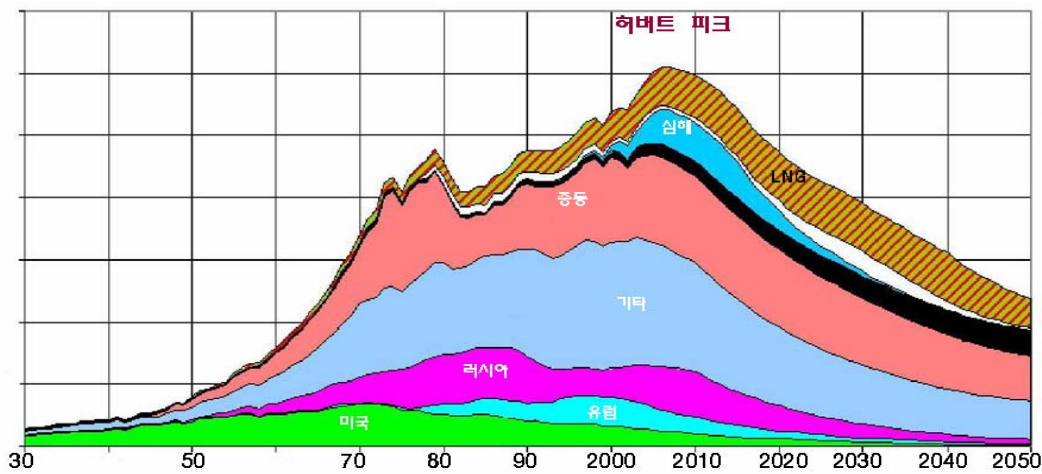
- (인도 경제의 부상) 과거 10년간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고성장 지속 : 1991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은 2.1%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혁, 우수 인력 배출, 印僑의 활약, 적극적 외자 유치 노력 등으로 2004년까지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인도 진출의 기회 요인) 자유로운 영어 구사 능력과 세계적인 수학, 공학 능력을 바탕으로 한 IT 인력이 풍부함
 - IT 인력의 풍부 : 2001년 인도의 對美 컴퓨터 관련 부문 인력 수출 규모는 약 14만 명으로, 미국 전체 컴퓨터 관련 부문 전문 기술 인력의 71%에 해당됨
 - 잉글리쉬(English)의 지배 : 잉글리쉬는 인디아(India)와 잉글리시(English)의 합성어로 힌두어식 발음의 영어를 의미
 - ※ 캠브리지 영어백과사전의 저자인 데이빗 크리스탈 교수는, 19세기는 영국 영어, 20세기에는 미국식 영어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인도의 고성장세와 많은 인구로 21세기에는 '인도식 영어'가 국제공용어가 될 것으로 전망 (내일신문 2005년 6.14.)
- (인도 진출의 위협 요인) 인프라 부족, 카스트 제도의 존재, 제조업 부실, 성장과 분배 정책의 딜레마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인프라 부족 : 전력, IT 기반 시설, 물류 인프라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63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World Economic Forum, 2004)
 - 제조업 부실 :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은 15% 내외에 불과하여 향후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이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 빈곤 박멸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나 독립 후 사회주의 모델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카스트 제도 등 사회 제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정책에 한계가 있음

3. 허버트 피크의 도래 - 에너지 가격 상승세 지속

- (의미) 2010년 내 전세계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이루는 '허버트 피크'가 도래함에 따라, 석유 자원 고갈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석유 공급 불안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황) 美 프린스턴 대학의 지질학 교수인 케네스 드페예스(Kenneth S. Defeyes)가 그의 저서 '허버트의 정점 (Hubbert Peak)' 에서 세계 석유 생산은 2000~2010년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석유 생산 정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석유 위기의 징조이며, 향후 파국적인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함

< 석유 및 액화가스 채굴량 전망 >

(10억 배럴/년)



자료 : ASPO (Association for Study Peak Oil & GAS).

< 허버트 피크 (Hubbert Peak, 석유 고갈론) >

- 허버트 피크의 유래 : 1956년대 지구물리학자 킹 허버트가 美 석유 생산이 1970년 경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후 이 가설이 사실로 판명
- 케네스 데페예스 교수는 저서 '허버트의 정점'에서 세계 석유 생산이 2001~2010년 중 정점에 이를 것이며, 최근의 유가 급등은 이러한 허버트 피크의 징후라고 주장
-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 진보에 따르는 채굴 능력 발전, 미확인 탐사 지역 존재 등으로 석유의 가채 매장량은 현재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반론도 상존함 ('파국적인 석유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도서출판 중심, 2003.)

○ (영향) 이처럼 에너지 자원의 공급 제약이 현실화되고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 공업국들의 수요 급증세로, 국가간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격화와 이에 따르는 고유가 지속이 전망됨

- 국가간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격화 : 과거 냉전 시대의 군사 외교적 우방·적대 관계가 에너지 확보 문제와 관련된 실리적 관계로 재편성되고 있음
 - 대립 관계이었던 중국과 인도의 시리아 원유 및 천연가스 자산 인수,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송유관 건설 추진, 이란 아자덴간 유전 개발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 등

< 중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노력 >

- 중국은 CNPC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와 CNOO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등의 자국 석유 회사들을 앞세워 해외 에너지 생산 회사 인수를 통한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 노력을 경주함

< 중국의 해외 에너지 확보 투자 >

	중국투자회사	투자 대상 지역 및 인수 회사	투자 금액
2005년 4월	CNPC	몽골, 석유 및 천연가스 자산 투자	9,300만 달러
2005년 6월	CNPC	모리타니아, 연안 석유 가스 광구 투자	860만 달러
2005년 8월	페트로차이나	카자흐스탄, 페트로카자흐스탄 인수	41억 8,000만 달러
2005년 9월	CNPC	에콰도르, 유전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수	14억 2,000만 달러
2006년 1월	CNOOC	나이지리아, NOML 유전 지분 45% 취득	22억 7,000만 달러

자료 : 각 언론사 자료.

주 : 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중국해양석유총공사).

- 미국의 이라크 침공(세계 2위 석유매장량 1,120억 배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 수출 중단, 이란 아자덴간 유전 개발과 관련한 美日 외교 분쟁 등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임

< 이란 아자덴간 유전 개발 미-일 외교 분쟁 >

- 미국이 이란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이란 투자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유전 개발을 강행
- 일본 정부가 대주주인 국제석유개발은 2006년부터 매장량 약 260억 배럴로 추정되는 아자덴간 유전 개발을 위해, 1,000억~2,000억 달러를 이란에 투자할 계획임

○ (대응 방안) 이러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및 주요 사용 원자재에 대한 헷지 능력 제고 등이 요구됨

4. 펀드자본주의의 확산 - M&A 활성화와 기업 판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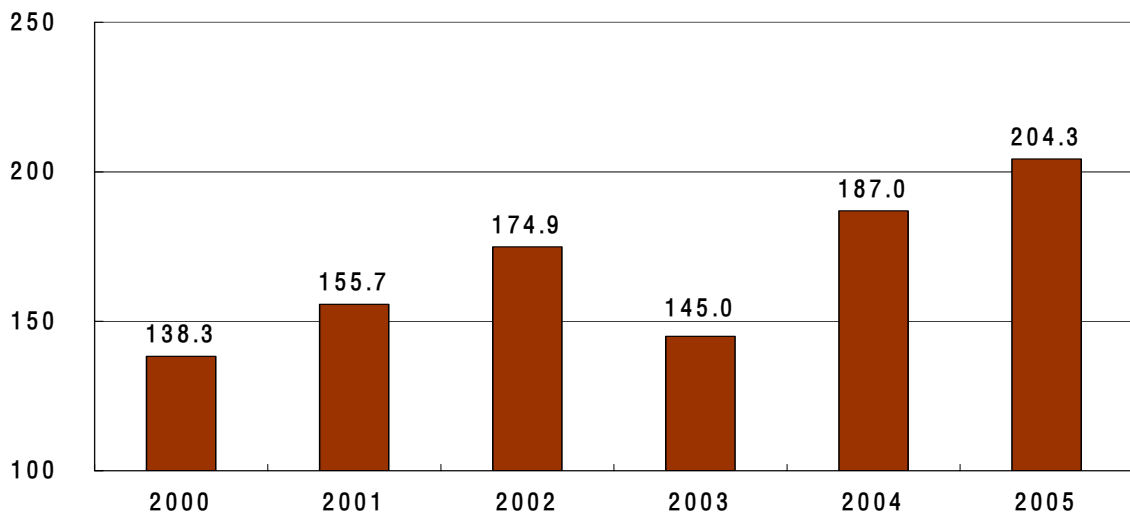
- (의미) 전 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 자산이 펀드로 이동하여 펀드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가 기업 지분 확보를 통해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펀드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함
- (현황) 저금리 금융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투자 성향이 안정성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되어 펀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함
 - 펀드 시장 급성장 : 세계 펀드자본주의를 이끄는 4대 펀드인 연금, 투신, 헤지, 사모투자 펀드중 가장 큰 연금펀드의 경우, 2004년말 기준 약 10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함 (국민연금관리공단)
 - 특히 국제 자본 시장의 교란 요인인 세계 헤지펀드 규모는 2002년 6,400억 달러에서 2005년에 1조 달러로 56.3% 급증했음 (국제헤지펀드협회)
 - 펀드 시장 급성장의 원인 : 이러한 펀드 급팽창의 원인은 2001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주요 국가들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고수익이 실현 가능한 펀드 금융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임
- (펀드자본주의 영향력 확대) 이와 같이 세계 펀드 자본 규모의 확대로 펀드들이 보유한 기업 지분 규모가 커짐에 따라, 펀드 자본의 목적이 단순한 투자 수익률 제고에서 M&A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
 - 美 최대 연금펀드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은 월트디즈니 회장,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퇴진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우리나라에서도 소버린의 (주)SK 경영권 위협, 투신사들의 우리금융 회장 스톱업선 부여 반대 등 펀드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M&A 시장 환경 변화) M&A 시장 수요 측면에서 펀드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기업 및 정부 지분 매각 대상 기업들의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M&A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수요 측면 : 국내 펀드 시장 규모는 2000년말 약 138조 원에서 2005년말에는 204조 원으로 급증함

< 국내 펀드 시장 규모 >

(조 원)



자료 : 자산운용협회.

주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설정 잔액 기준임.

- 공급 측면 : 舊 대우 계열사, 교보생명 등 정부의 매각 대상 기업들의 1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M&A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 (M&A 활성화의 영향) M&A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매물 기업의 인수 방향에 따라 재계 판도의 변화가 예상되며, 적대적 M&A도 급증할 전망이다

- 재계 판도의 변화 : 현재 매물 기업들의 자본 자산 규모가 거대하여, 이들 기업의 인수 향방에 따라 재계 순위의 변화가 예상됨

- 적대적 M&A 급증 : 단순한 투자 목적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응 방안) 국내 활성화가 예상되는 M&A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적대적 M&A에 대비한 경영권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임

5. 政冷經熟의 한반도 정세 - 북핵과 민족 공조 틈 속의 남북 관계

- (의미) 한편 남북경협 측면을 보면 북핵 해결의 지연 속에 미국의 우회적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은 공세적 민족공조와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 경협은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됨
- (政冷 : 북핵 문제 교착화) 북핵 문제는 올해에도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북한의 '先경수로 제공, 後핵포기'(NPT 복귀 및 IAEA 사찰 수용 등) 주장과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로 6자 회담 재개가 지연되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은 신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여전히 '비민주 국가'로 지칭하고 있으며, 미국은 위폐·마약밀매 등 불법 활동 제재와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經熟 : 남북경협 확대) 북핵 문제의 중장기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세적 민족공조 입장과 남측의 북핵 해결의 주도적 역할 입장이 맞물려, 남북경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남측의 지자체 선거와 2007년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DJ 방북과 정상회담 가능성도 존재하며, 성사될 경우에는 남북경협의 급진전이 기대됨
 - 다만, 북핵 해결 지연과 한미간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한 이견, 정치·군사 부문의 합의 도출 지연은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대응 방안) 앞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과 경제 개발이 보다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SOC 사업의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북한은 2006~2008년까지를 전력·석탄·금속·철도 운수 등의 '기간공업 및 농업 3년 연속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부문의 '현대화'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6. 하이브리드 코드의 풍미 - 컨버전스와 디지로그 시대 전개

- (의미) 어원적으로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 또는 융합하는 '異種 결합'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 (Hybrid) 코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확산중임
- (현황) 이질성이 주는 신선美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요소간 결합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코드가 각광을 받고 있음
- 정치 : 유럽 국가들의 경제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대연정, 싱가포르의 계층간 화합 정치 등 '相生과 統合'이 세계 정치의 주류를 형성함

< 싱가포르의 계층간 화합 정치 >

- 상류층의 부정 부패 척결 : 리관유는 부패행위조사국(CPIB)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고, 친인척의 정계 진출을 배제하는 등의 청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 계층의 다양성 존중 :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등 각 민족 고유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등 각 계층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 갈등의 원인을 최대한 제거함 (연합뉴스 2005.12.13)

- 경제 : 방카슈랑스 등의 금융 상품 등장, 디지털 기반 위에 아날로그 정서가 결합된 디지로그의 확산 등 하이브리드 코드가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사회 :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 채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있으며, 국제 결혼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

- 문화 : 이종격투기의 흥행, 혼혈배우의 인기 상승 등도 하이브리드 코드의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음

○ (디지로그의 확산)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영역인 디지로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디지털 기반에 인간적 정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노력이 요망되고 있음

- 디지로그(DigiLog)란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로 디지털의 기술적 요소에 인간적 정감의 아날로그적 요소가 융합하는 것임
- 이러한 디지로그 제품의 예로는 수동식 필름 와인더 장착 디지털 카메라, 아노토 펜 등을 들 수 있음

< 아노토(anoto) 펜 >

- 스웨덴의 벤처 기업인 Anoto社가 개발한 것으로 펜에 특수 모션 센서가 있어, 펜으로 작성한 내용이 PC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펜임

○ (대응 방안) 이러한 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소비자와 직원들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인프라 확립에도 신경을 써야 함

- 시루떡 돌리기 정보 공유 : 예를 들어 디지털 연하장과 같은 인간의 정을 담은 정보 전달 등을 들 수 있음
- 디지로그형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향기가 나는 엘리베이터, 단말기 중심 금융 매장의 문화 공간화 추구 등의 전략이 요구됨

III. 기업의 대응 방안

- 2006년에 예상되는 대내외 경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신흥 시장 개척, 비가격 경쟁력 강화, 금융 상품 및 원자재 헷지 전략, 무역 결제 통화 다변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M&A 시장에 적극 참여, 북한 SOC 사업 참여, 정서적 측면의 인프라 확립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신흥 시장 개척 :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지역에 교역이나 투자가 편중된 기업의 경우, 유럽과 일본은 물론, 산유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 공업국 등과의 교역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비가격 경쟁력 강화 : 가격 경쟁력 위주의 수출 전략을 지양하고 R&D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금융 상품 및 원자재 헷지 전략 : 환 헷지는 물론, 주식이나 금리성 자산, 원자재 등도 점차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시장 교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함
- 무역 결제 통화 다변화 : 무역 결제 통화를 달러 이외에 유로, 엔화, 원화 등으로 다변화하는 환 리스크 분산도 필요함
-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기업들은 각각의 여건에 맞추어 중국 경제 위기 발생시 전염 효과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장치와 같은 상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M&A 시장 활성화에 대비 : 활성화가 예상되는 M&A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적대적 M&A에 대비한 경영권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북한 SOC 사업 참여 : 향후 북한의 대외 개방과 경제 개발이 보다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SOC 사업의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정서적 측면의 인프라 확립 : 소비자와 직원들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인프라 확립이 필요함 **HRI**

경제연구본부 (juwon@hri.co.kr) ☎ 02-3669-4030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P)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6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2	-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5	3.2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1.9	-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3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거 래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8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5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7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2)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0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3)	(14.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8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

주: 2005년 국민 계정은 한은 속보치 기준이며, 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은 미발표됨.